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기획세션 I :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강진철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2021 DMZ포럼(DMZ Forum 2021)의 첫 기획세션은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남북 통합의 첫걸음은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라는 전제하에 문화·역사 교류 등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인 고계성 경남대 관광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훈 북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정진영 국립인천대 부교수와 장철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실질적인 남북한 주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컨벤션 및 이벤트 경영 분야의 교육자이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북텍사스주립대 김영훈 교수는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한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과정도 자가격리를 하며 내일을 계획하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운을 뗐다. 김영훈 교수는 "남북은 그동안 장소의 부재로 현실적 만남과 교류보다는 정치, 행정 등 국가적 사업의 교류만 이어오며 획기적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현재 연구중인 남북 공동마을 인큐베이팅 빌리지는 인공적 도시보다는 자연발생적 마을이 되어야 한다, 서론과 적용이론, 연구계획, 방법론, 결과를 제시하며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의 장소를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DMZ 방문객의 관광경험과 평화관광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DMZ의 군사적, 장소적 특수성으로 한국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반드시 방문하고자 하는 곳인 점을 짚으며 현재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안보관광의 개념 정립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다. 또한 국방부에서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전쟁의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DMZ를 생태적, 학습 체험의 현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안희자 부연구위원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다는 군사적 긴장감 속에 DMZ를 방문한 관광객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평화의 중요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 및 다크투어리즘 명소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인천대 정진영 부교수는 북텍사스주립대 김영훈 교수가 발제한 <DMZ 미라클존, 평화공존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단순한 네이밍을 넘어 정책적으로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음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마을 구성의 조건, 예컨대 지역주민의 참여나 관광객 방문 허용 등 법률적·제도적 연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

다.

정진영 부교수는 “우선 이산가족 상봉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점진적 단계를 거쳐 헤어진 실향민과 친지의 만남, 스포츠 행사나 전시, 컨벤션, 비즈니스 순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확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영훈 교수의 인큐베이팅 마을 프로젝트에 대해 UN 및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점을, 안희자 연구위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안보->평화 관광 체계 전환이 정책적 이점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시에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 낼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장철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인류가 직면할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경기도 내 태양광·풍력 발전시설로 생산한 전기를 남북한 접경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가로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 논제를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며 DMZ내 전략적 거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좌장인 고계성 경남대 교수는 탄소중립이 2006년 옥스퍼드 어학사전에 등록된 이후 전세계가 관련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감하며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패널의 1차 발언 이후 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통일에 있어 정치, 행정, 군사, 안보 뿐 아니라 관광, 과학기술, 예술, 도시계획, 건축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김영훈 교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모습을 과학기술로 재연해 10살 아이와 대화를 나눈 BBC 기사 내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 연구와 기술 협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진영 부교수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키워드가 화두로 떠오른 점을 짚으며 특히 DMZ 분야에서 기존의 사고를 벗어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광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어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광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김영훈 교수는 관광에 대한 북한과 우리의 시각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DMZ의 경우 모든 학문이 집결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MZ가 군사적 경계선이라는 이유로 정치·행정의 영역에 머물러있는데 오히려 관광과 생태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비무장지대를 새롭게 평가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계성 교수는 경기도와 인접한 수도권 시민의 입장에서 남북한 주민 소통 참여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방식의 참여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정진영 부교수는 안보·평화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관광의 본질은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만나는 상호교류라며 접경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 발굴을 통해 평화에 대한 거버넌스를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을 마치며 고계성 교수는 DMZ를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남북한 주민 간 소통을 전제로 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짚으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기획세션 I :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이수민 평화공공외교협력단

5월 20일~21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 DMZ 포럼'은 개회식과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특별 세션에 이어 첫 번째 기획 세션인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을 진행했다. 이 세션은 남북 통합의 첫걸음이 남북한의 주민 서로가 소통하며 이해해나가는 것이며 문화역사 교류와 관광은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좌장은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인 고계성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영훈 북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와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차례로 이어나갔다. 토론은 정진영 국립인천대학교 부교수와 장철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진행하였다. 고계성 좌장은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DMZ는 더이상 갈등의 땅이 아닌 평화로 상징되며 교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션으로 남북한 상호 이해를 토대로 생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자"며 세션의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영훈 북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는 미래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존할 공간을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인큐베이팅 빌리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세계 유일무이한 장소가 된 DMZ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정치, 경제, 관광산업 등과 연결된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비무장지대가 아닌 꿈과 기적의 지대, 즉 Dream and Miracle Zone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큐베이팅 빌리지에 대한 사전연구 방법으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두 가지로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로는 남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선입견이 감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양적 연구는 I, II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I은 다크 투어리스트의 관광목적지 이미지, 장소에 대한 인식, 향후 방문 의사를 조사한 개념 모델을 검정했으며 관광객의 Engagement(참여)가 향후 방문 의사에 미치는 역할을 혁신적으로 고찰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적 연구 II는 심리학적 차원에서 조사했고 국내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이 몇 가지 기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관광객 위주의 행동 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기존 관광 연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DMZ를 하나의 연구 과제로 특히 만남과 소통을 위한 장소, 인큐베이팅 빌리지가 건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DMZ 방문객의 관광 경험과 평화관광의 과제"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설명해나갔다. DMZ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향후 DMZ 평화관광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전 국민 설문 조사 결과는 DMZ가 남북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관광객들의 주된 방문 동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수요는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DMZ의 역사적 가치, 생태적 가치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교육관광이 높기 나타난 점으로 앞으로 DMZ 관광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다양한 방식의 관광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DMZ 관광객 심층 인터뷰로 도출한 DMZ 방문객의

관광 경험은 생생한 현실감, 세대를 넘어 기억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 안보와 통일에 대한 경험 3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광 경험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통일에 대해 강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①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 전환 ② 다크투어리즘 명소화 전략 ③ 교육 관광 목적지화 ④ DMZ와 접경지역 기억의 기록화 작업 추진 ⑤ DMZ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 추진 등 5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강조하며 2030세대들이자 MZ세대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 자원화, 상품화 관련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국립인천대학교 정진영 부교수는 먼저 두 발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영훈 교수 발표에 대해 "DMZ라는 공간을 드림미라클존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제안은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 하지만 인큐베이팅 마을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 법률적인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안희자 연구원의 발표에 대해선 "안보관광을 향후에 MZ세대를 위한 평화관광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DMZ 안보관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북한이 남한의 DMZ관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서 정진영 교수는 3가지의 의견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남북한 주민의 소통과 만남은 이산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헤어졌던 이산가족, 실향민 만남에서부터 스포츠 행사, 컨벤션, 비즈니스 목적 기업 모임으로 발전해 마지막으로 개별 국민들이 참여하는 관광만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만남이 불가능하므로 화상 미팅을 개최하여 서로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대면 남북한 주민 비대면 교류 TF를 구성해서 북한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TF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세 번째로는,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교류로 인프라 구축,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DMZ의 효율적인 사용, 불필요한 행정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서로 긴밀하고 협력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끝맺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들의 발표에 대한 의견, 그리고 기획 세션 제안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영훈 교수 발표에 대해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에 대한 인큐베이팅 마을 아이디어가 정책적인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UN과의 협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안희자 연구원의 발표에 대해선 "정책적이고 학문적인 면에서 훌륭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남북한 주민의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쉬움이 존재한다. 북한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지 논의를 추가했다면 더 좋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재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서 DMZ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간이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개발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한이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남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인 DMZ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코멘트에서 정진영 부교수는 "남북관계의 인적교류에는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 창의적 해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조율하면 진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 분야에서 서로 조력할 때 (DMZ가) DREAM MIRACLE ZONE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김영훈

교수의 아이디어를 인용하면서 말을 끝맺었다. 고계성 좌장이 “경기도민 입장에서 남북한 주민 소통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란 질문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DMZ 지역 주민이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공동으로 참여를 해 시너지를 얻고 평화의 이념을 전파하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법안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린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예리한 지적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고계성 좌장은 “평화의 전제조건이 소통과 만남이다.”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다.